

## 未來社會의 大學像



植國大 總長 張 忠 植

### I

大學은 한마디로 말해서 그 時代의 知性을 表象하는 社會的 斷面이라고 볼 수 있다. 大學이 어떤 형태로 存在해 있었느냐 하는 것은 當時의 社會가 大學에 대하여 어떠한 要請을 했었느냐 하는 意味로 받아 들일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大學이 社會에 대하여 어떠한 구실을 했었느냐 하는 점에서 評價를 받을 수도 있다. 前者의 경우는 大學의 受動的인 측면을 이야기하는 것이며, 後者의 경우는 大學이 지니는 能動的인 측면을 말하는 것이다. 오늘날 大學人의 立場에서 우리들 自身이 所屬해 있는 大學의 體質을 診斷해 보았을 때 오늘의 大學들은 前例에서 과연 어느 것에 속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한번쯤 생각해 볼 必要가 있지 않을까 느껴진다. 大學이 能動態이기 위해서는 大學 나름의 自主의 力量이 相當수준에서 發揮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教育을 가리켜 國家百年大計의 業이라고 하거니와 大學의 自主의 力量發揮의 限界는 國家發展의 理念的인 本質과 衝突하지 않는다는 線에서 概念지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아무리 教育이 至重하다고 하지만 國家存立의 價値次元을 넘어서는 없는 것이라고 理解할 때 비로소 大學의 役割 및 機能과 大學生의 基本的 召命이 무엇인가를 쉽게 깨달을 수 있게 된다. 여기에서 말하는 大學의 自主의 力量은 그와 같은 限界概念의 것으로 말하는 것임을 미리 밝혀 둔다.

### II

오늘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過去에로 回歸한 옛 時點에서 보면 오늘의 大學들은 刮目하리 만큼 크게 發展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未來 속에 서서 오늘의 大學現實을 想像해 본다면 우리는 보다 많은 部門에서 現在의 大學들이 지니고 있는 未洽點과 矛盾點을 찾아낼 수 있게 되는 동시에 그 점을 是正補完해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責任을 느끼게 된다.

後悔없는 經驗을 쌓아 가기 위하여는 現實을 直視할 줄 아는 밝은 눈이 必要하며 未來社會의 要請에 副應할 수 있기 위하여는 大學의 機能을 擴充시켜 갈 수 있는 役割을 增大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 大學의 未來를 볼 수 있는 實證的인 사실은 現時點에 있어서도 얼마든지 찾아낼 수는 있다.

一 예를 든다면 우리 나라 大學의 發展水準을 넘어서서 거의 完全에 가까운 형태로 運營되고 있는 先進社會型의 大學群을 보면 하나의 未來模型으로 參考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우리의 大學이 반드시 그들 大學의 類型을 模倣할 必要는 없지만 어쨌든 未來社會的 要請과 社會的 活氣를 振作케 할 兩面的 意味의 機能을 遂行할 수 있는 大學像은 摸索되어 나가야 할 것이다. 大學像은 施設이라든가 規模 등 外形의인 條件만으로써 形象되는 것은 아니다. 보다 重要한 것은 大學의 內面인 體質이 어떻게 形成되고 있느냐 하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大學의 內面, 즉 大學成員의 資質이라든가, 大學運營의 哲學, 그리고 大學自體가 지니는 特性 등이 어떻게 調和있게 配合되어 있느냐 하는 것이 重視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첫째, 大學成員의 資質問題는 어떠한 分野의 專攻人이 되었든간에 深度있는 研究底力이 蓄積될 수 있느냐라는 점에서 評價되어야 할 것이다. 大學社會成員이 지니는 特徵의 하나가 바로 專攻人의 集團이라는 점이다. 複數의 專攻人이 共存하는 大學社會는 어떠한 分野의 問題에 대해서도 挑戰할 수 있다는 可能性을 지닌다는 意味에서 大學人의 社會的 存在意義는 深大한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大學人의 成員構成內容을 보면 特定部門에 偏重되어 있는 性向이 길다.

몇 가지의 實例를 든다면 우리나라의 立場에서 보았을 때 꼭 있어야 할 隣接國家에 관하여 研究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점이다. 그리고 國際的으로 뻗어가야 할 對象地域國家에 대한 學術文化的인 情報가 너무도 어둡다 보니 學問的인 情報競爭面에서 盲人摸象의 愚를 범하지 않을 수 없는 경우도 非一非再하였다. 그 端的인 實情은 번역능력의 깊이와 폭 그리고 층이 얕다는 데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外書翻譯物이 特定學問分野에 거의 局限되어 있다시피 한 것은 情報消化能力의 깊이에 관계되는 問題이며, 번역대상 외국어가 몇 개 국어로 限定되다시피 되어 있다는 것은 情報接近能力의 幅에 관계되는 問題이다. 그리고 번역능력 인력이 系列化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새로운 必要情報를 適時에 深化擴散시켜 가기 어렵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는 能力의 層壁에 관계되는 問題이다. 年中 하루도 빼놓지 아니하고 每日 平均 360種 以上의 新刊書籍(譯書包含)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日本의 實例에 견주어 본다면 우리 나라 大學成員에게 期待되는 未來課題는 重且大하다 하겠다.

둘째, 大學運營의 哲學問題는 個性을 尊重한다는 基本的 立場에 바탕을 두고 全體調和의 美를 追求하는 方向에서 그 解決策을 摸索해 나가야 할 것이다. 사람마다 얼굴 모양이 다르듯이, 大學마다 그 設立趣旨와 教育理念 및 運營方法이 다를 수 있다. 그러면서도 大學의 共通性과 普遍性을 찾아낼 수 있다는 것은, 구체적인 個人이 「우리」라는 共同體成員이 되어 沒個我的인 集團目標成就에의 貢獻者가 될 수 있다는 論理로써 능히 論證된다고 믿어진다. 아무리 뒤진 國家社會의 경우에 있어서도, 大學人만큼은 先進情報에의 接近力이 가장 강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情報에의 適應能力도 가장 풍부하다. 따라서 大學人들은 어느 時代 어느 社會에 있어서나 가장 앞서 가는 生活情報의 同伴者임에 거의 틀림이 없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그들 大學人에게 스스로 옳다고 是認하며 가장 健實하다고 確信하는 哲學의 領域에서까지 만약의 경우 自主性이 認定되지 않는다면 知性은 不滿을 同伴하는 知性으로 變質될 수도 있다는 것을 감안하여, 大學運營의 哲學的 軌道를 보다 中庸性 있게 提示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現代憲法에서 거의 例外없이 良心의 自由, 宗教의 自由 그리고 學問의 自由 등을 闡明하고 있거니와 그 絶對的인 自由概念을 그릇 생각하는 일이 있어서서는 안 된다. 良心의 自由는 自身이 지녀야 할 良心의 本質까지를 否認해도 좋다는 意味의 自由가 아닐 것이며, 宗教의 自由 또한 宗教 그 自體의 本性破壞까지도 是認한다는 뜻의 自由는 아닐 것이다. 그리고 學問의 自由도 學問하는 正道를 벗어나거나 眞理를 外面하는 것까지를 寬容한다는 意味의 自由는 결코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大學運營의 哲學도 그 限界는 明白해지는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세째, 大學自體가 지니는 特性問題는 教科의 自律化라는 측면에서 發展的으로 풀려 갈 수 있게 되어야 할 것이다. 社會機能의 高度的인 分化趨勢는 學問의 細分화와 아울러 高次元的인 綜合을 同時에

要求한다. 이와 같은 要求趨勢에의 對應方法으로서 第一義의인 것은 教科運營의 技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教科運營의 自律化는 大學 나뭇의 特性을 스스로 助長해 갈 수 있는 機能力을 지니게 할 것이다. 그리고 社會變動과 그 變動으로부터 提起되는 要求의 干滿潮流를 능히 調整해 갈 수 있는 多元의 裝置를 마련한다는 制度的 意義까지도 찾아볼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大學 自體가 自律自制할 수 있는 能力을 갖추어야 하는 한편, 大學的인 理性을 잃지 않는다는 自己中心의 特정한 支柱를 定立해야만 한다.

흔히들 大學은 아름다운 樂園이라 일컫고 있으며, 또한 大學은 浪漫의 社會라고도 한다. 그러나 그 아름다운 樂園의인 本質은 大學이 自身의 正位置를 뚜렷이 定座하였다는 所信을 確固히 하였을 때 吟味할 수 있는 價値인 것이다. 그리고 浪漫의 社會라는 것은 他部門 社會에서는 맞출 수 없는 眞理와의 無言의 對話를 할 수 있다는 自信을 지녔을 때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이와 같은 視角에서 본다면 보다 바람직한 大學像은 現時點에서 充足될 수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實質的으로 느끼는 未洽點을 補完하고 是正해 가는 持續的인 努力의 結果에 의해서만 追求될 수 있는 것이라고 理解된다.

### Ⅲ

오늘날의 文明은 거의 神祕의 領域까지 파헤쳐 들어가는 段階에 접어들고 있다. 어느 部門에 있어서이든 그 部門에 從事해야 할 人力은 源泉의으로 大學에서부터 輩出된다고 보았을 때 未來競爭 社會에 適應해 가기 위한 準備는 다시 한단 높여서 생각한다는 積極性을 띠어야 할 것으로 본다.

그러기 위해서는 政策當局은 大學마다 지니는 特性을 보다 長期眼目的인 면에서 助長시켜 간다는 方向摸索에 加一層 拍車를 加해야 할 必要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大學自體에서는 大學觀의 高度化와 競爭의 大學社會의 特質이 무엇인가를 國際的 次元에서 그 視界半徑을 넓혀 가는 데 주저하지 않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우리의 現實을 直視할 때 우리 나라에도 大學이 얼마만큼 있다는 것만으로써 滿足해 하고 있을 때는 아닌 것 같다. 大學이 含有하고 있는 潛在의 力量과 그리고 國際的 競爭可能性의 水準이 어느 段階에까지 와 있는가를 尺度할 수 있는 自體診斷을 끊임없이 서둘러 가는 자세가 더욱 必要하다고 느껴진다.

大學教育協議會는 이와 같은 當面課題들을 眞正한 立場에서 協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던 晩時之嘆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하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大學教育協議會는 情報交流의 機構로서만이 아니라 바다 表面의 물결처럼 變動되어 가는 世態的 狀況 속에서도 最少限 百年 長期의 教育的 安定基調를 지탱해 갈 수 있는 自律力量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文字 그대로 百年大計의 教育이 民族史的 發展論理面에서 成熟되어 가려면, 革新과 承繼 그리고 變化와 不變이라는 兩面性의 論理가 調和있게 配合될 수 있는 可能性이 教育이라는 측면에서 가장 體系 있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흔히들 革新은 舊價値의 斷切인 양 생각하고 變化는 既存秩序의 포기인 양 오해하는 경우도 없지 않다. 大學教育協議會의 役割과 機能은 그와 같은 調和原理의 産室 구실을 통하여 未來社會의 大學像을 彫塑해 가는 匠人役을 다할 수 있게 되어야 할 것이다. \*